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제정 위해 전남도-경북도 '맞손'

심각한 고령화·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 현실 공동 돌파

경북도와 전남도가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친다.

경북도는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이 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두 지역은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현실을 공동으로 돌파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멸위기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담긴 주요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 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조세

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등)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립 연구원의 '지방 소멸위기와 대응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의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 순으로 이어졌다. 김정환 기자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약 18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약식에서 임종석 협력재단 이사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박희울 구의회 의장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GGM 22명 공채...생산직은 내년 상반기

과장·대리급 경력 3차 모집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18일 오후 3차 공개경쟁을 통해 과장과 대리급 경력사원 2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사업기획과 경영지원, 생산, 품질관리 4개분야 일반직 경력사원으로 지난해 채용에서 선발하지 못한 차체·의장 등 일부 지원분야를 포함해 과장급 8

명, 대리급 14명 등이다.

지원자격은 과장급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자, 대리급은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자이다.

원서접수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채용 절차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첫 모델인 GGM은 공장건설과 생산설비 도입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직 채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집중호우 피해 없이 공장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인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이용섭 "서창 침수피해 인재적 성격...유형업소 감염사태 무관용 원칙"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유형업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조건은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이며 충분조건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지난 14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4일 동안 845명에 달하고, 유형업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지역 코로나집단감염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관내 682개 유형주점과 클럽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내렸고 유형업소 유사시설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플라텍, 노래방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시설폐쇄와 고발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시민 모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이번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창 침수사태를 지목했다.

이 시장은 "서창동 일원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사태를 빚은 것은 방수와 소홀이 부른 인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했거나 호우 당일 제때 수문조작이 이뤄졌더라면 이번과 같은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소관 부서인 환경생태국이 이번 서창 일원 침수 피해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 보고 관리주체 문제나 배수통문 개폐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동구, 9월부터 남광주시장에 도시가스 공급

광주 동구가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 오는 9월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총사업비 2억9천여만 원을 들여 남광주시장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약 841m) 및 입상관을 설치 중이다.

동구는 지난해 9월 (주)해양에너지와 남광주시장 도시가스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내 110여개 점포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신봉우 기자

서구,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광주 서구가 서구 주민 중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표본지점을 추출 선정하여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건강관리수준, 삶의 질 등 총 142개 문항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교육 받은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붉은색 티셔츠의 유니폼을 착용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인호 기자

남구, 백운광장 공중 보행로 등 현안사업 탄력

광주 남구 백운광장 주변에 공중 보행로를 조성하는 푸른길 공원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남구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등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남구는 14일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정부 재원 확충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인 사업은 백운광장 공중보행로 조성, 남구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지산마을 하수관로 정비, 유안 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 및 힐링 숲 조성 등 47기다. 김민정 기자

북구, 계약시스템 혁신방안 마련...이달부터 추진

광주 북구가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계약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혁신방안으로 △수의계약 회수제한 △단기계약 확대 △주민참여 감독제 △계약정보 공개 △업무처리 기간단축 및 계약서류 온라인 접수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계약 담당자 멘토링제 등 7개의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방지하고 다수의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계약 회수를 연간 4회로 제한한다. 서선욱 기자

광산구, 온라인으로 시민과 대화 한다

광주 광산구가 20일 오후 4시 '광산형 행복뉴딜 온택트(On-Tact) 시민 대화'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광산형 행복뉴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광산구가 마련한 지역주도형 뉴딜정책, 광산구는 민선7기 2년의 성과인 '안전 광산' 토대 위에 매력·활력·품격 부문 뉴딜로 구정 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3개 부문 아래에 3,300억원 규모로 8대 분야 26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인건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력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력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게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1배 240,833원 1.7배 125,531원 2.1배 79,147원 2.7배 48,103원 5.3배 26,697원

5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1분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